

탄소중립·생태 힐링 환경 조성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기

남원시, 생태관광·자원순환·환경관리 등 종합 정책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성과를 발간 삼아, 2026년에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행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리산 남원 예요촌 조성사업' 국비 60억원을 전액 확보함에 따라, '걷고, 쉬고, 놀고 여행'에 적합한 친환경 체류·체험 시설을 구축하여 특색있는 생태관광 경쟁력을 선점하고자, 2025년 주민설 명회와 설계 공모를 마쳤으며 2027년 까지 사업을 완료해 독보적인 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2026년에는 폐기물 성상 조사와 선별공법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2026년에는 재활용동네마당 15개소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352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2026년



광역 소각시설 위치도.

또한, 이와 연계하여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2026년에는 폐기물 성상 조사와 선별공법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2026년에는 재활용동네마당 15개소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352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2026년

에는 402동 추진을 목표로 하여 주민 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남원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및 시민스포츠타즈 운영 중이며, 지난 9월에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탄소중립 재활용 축제)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 측정소를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대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병우 남원시 환경과장은 "사람과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딸기' 전국 유통 본격 돌입

임실군 대표 농특산물인 임실N딸기가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가며 전국 소비자에게 공략에 나섰다.

임실N딸기 공신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농협 등 주요 대형 유통망을 통해 임실N딸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임실N딸기는 전량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명품 딸기로, 재배 단계부터 수확, 선별,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쳤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체계적인 재배 관리가 어우러져 당도와

향, 식감이 뛰어나고 신선도를 고루 갖춘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며 임실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일반 산지 딸기가 개별 농가 중심 생산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임실N딸기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해 크기와 품질이 균일하고 신선도가 높아 상품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합마케팅 조직과 연계한 공동출하 시스템을 운영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 딸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임실N딸기는 430톤 생산, 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500톤 생산과 55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대회·전지훈련팀 유치로 2025년 14만명 방문 성과

순창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1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총 53건의 스포츠대회와 51개 전지훈련팀, 연인원 14만 명의 방문이라는 성과는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단기 체류 인구의 증가로 식당, 숙박업소, 상점 등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며 스포츠 산업이 지역 성장의 실질적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창군은 기존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야구 중심의 대회 유치에서 벗어나 축구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이중국 축구 교실'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더욱 증가했다.

국내를 넘어 국제 교류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이 6월과 11월 두 차례 순창을 방문하며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등 해외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서 순창군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순창군의 스포츠마케팅은 단순히 대회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스포츠



종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경기장 및 훈련 시설 특별 관리, 대회 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순창군이 스포츠산업에 최적의 장소임을 입증했다.

이와 같이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 등 소상공인 상권에도 활력이 불었다. 선수단 방문으로 도심 분위기가 활성화됐으며,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26년에도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골목없는 산업의 꽃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순창군이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창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조성한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목척인재육성 지성관에 공식 개소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이하 센터)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관리형 학습공간'으로 군과 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연계형으로 지난해 6월 공동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최종 9월에 선정됐다.

센터는 목척인재육성 지성관 2층에 공

간을 마련했으며, 선발인원은 총 40명으로 관내 중학교 1·2학년 중에서 각 청과 협력해 조성한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목척인재육성 지성관에 공식 개소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 △자기주도 학습 코칭 △학습 습관 형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습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계획·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제1회 시민기록가 양성과정 시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7일 혼불문화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회 시민기록가 양성과정을 시작하며 주민이 직접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다.

이 과정은 전북도 지역혁신중심대학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남원시 다문화관은 전북대학교와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와 협력해 교육의 전문

성을 높였으며, 남원 다문화관은 교육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기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사매면 혼불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마을 아카이브 이해, 구술사 방법론, 구술 채록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기록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 2월 4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1월 5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이다.

또한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병역 미필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2026년부터 농업·농촌 온라인 신청(nongupez.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제출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전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세대당 최대 5억원의 농업 창업 자금을 연리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가금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임실군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모든 기종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 연장한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 농기계는 임실군 농업인 및 임실군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